

은행에 30兆원 수혈

정부, 승용차 개별소비세 오늘부터 30% 인하

이 대통령 “자세 가다듬지 못한 공무원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고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20조원의 자본확충 펀드를 구성하고 10조원 여분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주는 등 30조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11면〉

또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깎아주고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은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고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은행이 10조 원, 기관과 일반 투자자가 8조 원, 산업은행이 2조 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은행이 발행한 우선주나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본을 늘려준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들로부터 7조 원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는 3조 원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BIS 비율 제고를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업 대출액을 올해 54조 원에서 내년 68조 원으로 늘린다. 내년에 국책은행과 일반은행은 중소기업에 50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재정부는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천~2천cc 이하는 현행 5%에서 3.5%로, 2천cc 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인한다. 이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는 2천5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접대비 지출내역을 보관해야 하는 제도도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내년 1월말 폐지한다. 건당 50만 원 이상에 대한 지출내역 보관의무를 없애면 접대비 지출을 엄격히 감시할 방법이 없어 접대비 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의 대상 세목을 전면 확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환급을 내년 1월에, 양도세 환급을 내년 4월말 실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자 가운데 아직도 자세를 가다듬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직자가 위기 극복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양제철소 21년만에 첫 감산

엠코·캐리어 광주공장도...지역경제 먹구름

경기침체와 자동차·가전 등 수요 급감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87년 설비가동 이후 21년만에 처음으로 감산에 들어갔다.

또 기아차 광주공장, 삼성광주전자, 금호타이어 등 이른바 ‘빅 3’의 감산·휴무에 이어 엠코테크놀로지 광주공장, 캐리어 광주공장 등이 감산, 가동중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양제철소 등에 따르면 연간 1천750만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광양제철소는 12월 11만, 내년 1월 20만톤을 감산하기로 결정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12월 현재 철강재고량이 적정재고의 20%를 넘고 수출가격도 급락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산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패키징업체인 엠코테크놀로지 광주공장은 지난 1일부터 고 용유지조치에 돌입, 내년 23일까지 생산라인별로 순차적인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엠코 관계자는 “해외시장에서의 반도체 수요감소로 전 직원 3천여명이 매주 25%씩 돌아가며 휴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12월중 생산량도 올해 상반기에 비해 30%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캐리어 광주공장도 이미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갔다가 하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중단을 결정했다. 캐리어 광주공장의 경우 수요감소로 인해 지난 2006년 300여명의 감원과 1개의 생산라인을 폐쇄한 바 있다.

이들 대기업이 감산과 휴무에 들어가면서 중소기업체들의 경영난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하남산단 900여개 업체 중 휴·폐업이 확인된 업체만 10개로 불어났고 현재 일부 업체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장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합동청사 첨단시대... 주변 상권 ‘활기’

11개 공공기관 550여 명 이전 기존 청사도 리모델링 등 활력

광주지역 11개 공공기관과 550여 명의 직원들이 올해 말과 내년 초 접단단지내 정부합동청사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와 건물 등에 또다른 기관단체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 등 상권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합동청사가 들어선 광주시 북구 오동동 인근은 음식점들이 리모델링에 돌입했는가 하면, 아파트

분양 문의가 쇄도하는 등 주변상권이 마치 활기를 띠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을 비롯해 기관단체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 등 상권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청사 일대 지역에서는 벌써 부동산 가격상승 소문이 돌고 있고, 이전이 예상되는 공공기

관 관련 업체들도 무더기로 이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서구 쌍촌동) 부지와 건물에는 서광주세무서가 이전, 리모델링을 통해 새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국세청 인근에 있는 광주본부세관의 기존 건물은 세관박물관과 교육센터가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국세청 정문완 K음식점 대표는 “서광주세무서가 옮겨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소풍이나 마 땅값이 뛰었다”면서 “상주인구는 광주국세청보다 적지만 세무서 민원인들의 출입이 지금보다 더 잦아질 것으로 보여 장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정하는 광주지방조달청(서구 농성동) 부지에는 서구청 청사사가 들어선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9월 조달청 부지를 매입, 내년 3월 청사 신축에 들어가 오는 2011년 3월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소유인 광주지방보훈청(남구 주월동) 부지는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현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또는 처분하지 못하고,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뒤 공적인 활용방안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2면으로 계속〉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국회는 전쟁터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일인 18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앞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단독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회의장 안에서 쓰는 소화가 분말을 뒤집어 쓰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 경제권 조정 어렵다

이윤호 장관 인터뷰

호남권의 광역경제권 재조정 요구와 관련,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사실상 실현이 어렵다는 의중을 밝히면서도 호남권의 핵심 선도산업 변경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6면〉

이는 호남권이 광역경제권 재조정 요구를 철회한다면 호남권 핵심 선도산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박광대 광주시장 등 호남지역 광역단체장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호남지역 광역단체장들의 5+2 광역경제권 재조정 주장과 관련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 여건상 광역경제권을 이제 와서 다시 구성하는 것은 힘들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호남권 광역단체장들이 5+2 광역경제권 핵심 선도산업 사업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년에는 정부 재정이 조기 투입되고 각 부처에서는 광역경제권 세부 사업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호남권이 사업제출을 미룬다면 호남지역 광역경제권 사업의 출발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호남권이 선도산업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與, 한미 FTA 비준안 단독 상정 野, “원천 무효...장의투쟁도 불사”

한나라당이 18일 민주-민중노동-자유선진 등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원천 봉쇄한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단독 상정했다.

〈관련기사 5면〉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고 장외투쟁 의지까지 밝히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비준동의안 상정을 계기로 상임위로 중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민주당은 ‘육탄저지’를 통해 이를 막겠다고 밝혀 상임위 곳곳에서도 열띤 감도는 등 정국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간 치열한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한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박진 국회의원 외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개의를 선포했고 2분만에 비준안 가결

을 선포하고 이를 범안심사소위에 넘겼다.

이에 정세균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총에서 “오늘은 한국 국회 의회주의가 또 한번 유린당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 같은 의회 쿠데타가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고생 겨울방학 합숙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샘학원
교학상담: (062) 332-1111
포털사이트: http://www.hanseung.ac.kr

유망직업의 중심에 서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우리키? 아이키?
성장클리닉

정연한의원 371-1075-6

인미FTA 호남경제를 살립니다

인미FTA의 장외투쟁 마다 호남지역경제는 위기를 맞습니다